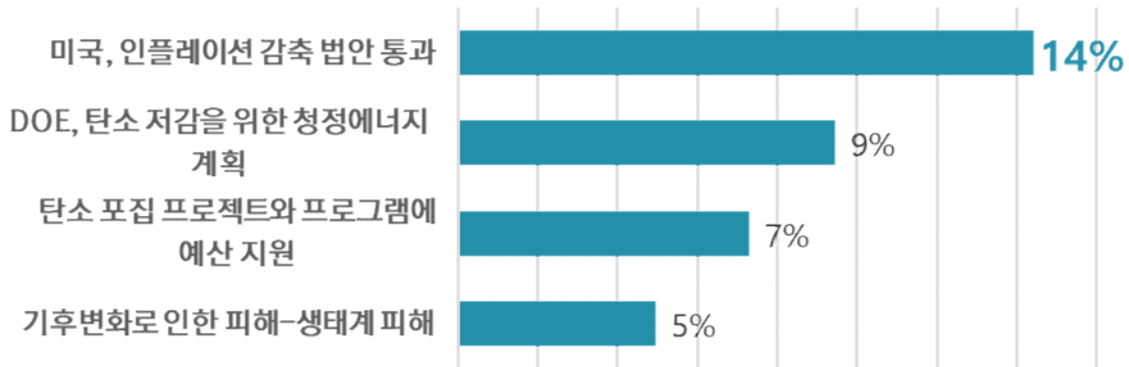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기후변화 법안) 통과

미국, 기후대기 주요 이슈 (2022. 01 ~ 2022. 08) ※ 총 2,137건 키워드 분석 결과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약 3,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지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이 미 상원을 통과함.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이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이 촉진되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며, 석유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이 보다 철저히 관리, 처벌되며 저탄소 기술에 대한 세금 공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은 (재원 마련을 위한)기업 세금 인상과 기후 변화 대응(환경조항 포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풍력, 태양열, 지열 에너지 기업과 주거시설에 태양열 등의 청정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전기 자동차 구입 관련 세금 공제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배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혜택 및 지원책을 제공함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해결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투자 증진과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로 미국이 글로벌 기후 대응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 주요 이슈

• 2022. 08. 07.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 법안 통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약 3,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지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함. 이에 따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이 촉진되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며, 석유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이 보다 철저히 관리, 처벌되며 저탄소 기술에 대한 세금 공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금번 법안 통과를 통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짐

자료: Brian Schatz (schatz.senate.gov), 「Historic climate bill to supercharge clean energy industry」, 2022-08-07

• 2022. 08. 08.

미국, 기후 법안 통과로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규모 예산 투입

미국 상원이 대규모 세금 편성 및 기후 변화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킴.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은 (재원 마련을 위한)기업 세금 인상과 기후 변화 대응(환경조항 포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동 법안은 당초 총 3조 달러 규모로 추진이 시작되었지만 교착 상태에 머물다가, 총 자금 규모 수준이 감소되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상원을 통과하게 되었음. 주요 내용으로는 풍력, 태양열, 지열 에너지 기업과 주거시설에 태양열 등의 청정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전기 자동차 구입 관련 세금 공제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혜택 및 지원책을 제공함

자료: The Hill (thehill.com), 「Energy & Environment — Senate passes biggest climate package in history」, 2022-08-08

• 2022. 08. 17.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글로벌 기후 대응 주도할 것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 목표 달성 및 경쟁력 강화, 청정 에너지 경제 촉진, 안보 환경 재편, 미국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을 회복 등에 역량을 모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로 인해 에너지 위기 해결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유럽연합 국가들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석유 및 가스 투자처를 발굴하며 기존의 기후협정에서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미국 금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는 미국사회의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켜 미국이 글로벌 에너지 환경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 CAP,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mericanprogress.org), 「How the Inflation Reduction Act Will Drive Global Climate Action」, 2022-08-17

이슈 세부 정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기후·에너지 부문 주요 내용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기후·에너지 부문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7,400억 달러 중 3,690억 달러(약 479조 원) - 청정 에너지 관련 미국 역사상 최대 금액 -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경제 회복 및 재투자 법안의 4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가격을 인하하며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 터빈업체, 태양광 패널 업체에 600억 달러(약 83조 원) 세금 공제, 인센티브 - 전기자동차 구매 세액 공제 - 석유 기업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위한 장비 시스템 15억 달러(약 2조 800억 원) 지원 (목표치 달성 못할 시 불이익) - 엑손모빌, 셰브론 등 석유기업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지원 - 메탄 배출 톤당 최대 1,500달러 부과 - 기후변화 위기 대응 위해 남서부 해안 지역 40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 지원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 2005년 수준에서 44%까지 감소될 것으로 추정 - 녹색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투자와 일자리 증가 - 미국 경제 부분적으로 재구성 -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 등에 대한 대규모 정부 투자 민간 부분으로 확산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시행의 시차로 인해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 미미할 것 - 기업 세금 인상으로 미국의 석유와 가스 생산 비용 높일 것 - 환경단체들은 엑손모빌, 셰브론 등의 석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비판

자료: (democrats.senate.gov),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Politico (politico.com), 「Historic climate bill to supercharge clean energy industry」, 2022-08-07

참고 문헌

□ 참고 사이트

1. Brian Schatz (schatz.senate.gov)
2. The Hill (thehill.com)
3. CAP,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mericanprogress.org)
4. Politico (politico.com)
4. democrats.senate.gov